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민장 광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음 윤5월 27일) 제 185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새만금사업,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회

대통령 약속 계획에 담아
도민 기대·열망 부응

그동안 추진 쉽지 않았던
국제공항 국정과제 반영

2020년 매립사업 추진시
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전북도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대국민 보고회에서 새만금 사업 등 전북공약과 주요현안이 국정과제에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3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201개 대선 공약(892개 세부공약) 및 각 부처제안 사항을 등을 검토하여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에 맞게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로 분류하고, 재원과 입법계획,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 중 78번(전 지역이 잘 사는 국가균형 발전)에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 기지로 육성'이라고 명시하고 그 내용으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 매우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새만금 사업의 국정과제 반영 의미는 첫째, 새만금사업이 지역공약이면서 개발사업으로 유일하게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아 도민들의 새만금에 대한 높은 기대와 열망에 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만금사업 집행과 관리를 위해 국토부 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등의 전북출신 임명 역시 대통령의 강한 추진 의지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둘째는 타 시도의 견제 및 중앙부처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그동안 추진이 쉽지 않았던 새만금 국제공항의 국정과제 반영으로 현재 국토부가 진행 중인 항공수요조사 용역, 앞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관련 절차의 탄력성이 기대가 된다.

아울러 도로(동서2축, 새만금-전주조



더위 식혀주는 물줄기

19일 전주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주한옥마을을 실개천 옆 미니분수가 시원한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속도로), 철도(익산~대야), 신항만(4선석)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 반영돼 하늘 길, 땅길, 바닷길이 모두 열려 명품 새만금으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는 새만금 사업 개발에 필요한 매립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하였으나, 공공주도 매립이라는 새로운 개발방식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됨으로써 2020년이 되면 매립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 민간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 4대 복합과제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이 들어있어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이라는 과제와 연계시켜 관련 사업을 추가 발굴하거나 국가사업화 추진도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전북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의 국정과제 반영 의미도 남다르다.

전북의 주요 대선공약인 국가식품클러스터, 탄소산업클러스터,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안전보호융복합사업 등 4개 사업의 국정과제가 반영됐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하는 국가식품클러 2차 산

▶ 전북 현안, 과제 반영 의미

국가식품클러스터 등도 반영
지역 내 균형발전 계기 마련

업단지 조성, 국제 농식품 비즈니스센터 건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뿐만아니라 혁신도시 중심의 신지역 성장 거점 구축을 위해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 도 공약인 혁신도시-새만금을 연계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육성' 사업이 좋은 대표모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탄소산업의 경우 전북이 경쟁적 우위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여타가 진행 중인 '탄소소재 국가산단'과 '안전보호융복합사업' 여타 통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미래형 친환경·스마트카 육성을 위해 친환경차 산업 허브 구축시 상용전자차 부문은 전북으로 명시하여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사업에도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 세계태권도대회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정부는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 추진, 세계적인 태권도 명품 콘텐츠 개발할 계획'으로, '국기원 등 태권도 관련 기관 이전'과 '태권 City' 등 무주를 세계태권도 성지화로 발전시키는 구상과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북도 공약 및 현안의 국정과제 포함으로 전북 내 균형발전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새만금사업(군산·김제·부안),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 종자(김제), 혁신도시 시전(전주·완주)와 함께 태권도원 성지화(무주), 가이유적 정비·복원 사업(동부권 전 지역 해당) 등 전북의 서부권 및 동부권에 골고루 사업이 반영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는 새만금의 공공주도 용지매립 방안, 국제공항 등 각각의 사업에 대한 도의 방향과 입장을 신속히 정리해 국토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현 정부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진성기자

돼지 각막 이식받은 원숭이 234일간 정상 기능 유지

국내 이종 이식 연구의 영역이 '장기'에서 '조직'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건국대병원 윤익진 교수팀과 함께 '필리핀 원숭이'에게 바이오 이종이식용 돼지 '밀음'의 각막을 이식한 결과, 234일간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됐다고 밝혔다.



농진청, 면역억제제 없이 안약만으로 정상 기능 유지

국내 첫 사례로 각막 이종이식 연구 임상 진입

이번에 시도한 각막이식은 '부분층 각막이식'으로, 합병증과 거부반응을 줄일 수 있어 실제로 사람에게 적용해 많이 수술하는 방법이다.

오른쪽 눈에 이식하고 1주일에만 한 번씩 안약을 투여해도 혼탁(흐려짐)없이 투명한 상태를 유지했다. 2개월부터는 안약투여도 중지했다가 190일째 혼탁이 관찰돼 항생제와 안약을 투여(주사)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그동안 이종이식용 돼지인 '지노(2009년)'와 초급성·급성 거부반응을 조절한 '밀음(2010년)', '밀음이'에 급

성혈관성 거부반응 억제하는 유전자(CD73)를 추가한 '사랑이(2017년)'를 개발했다.

2016년 '지노'의 각막을 원숭이에게 이식했을 때는 90일 동안 정상 기능이 유지됐으나, 이번 '밀음'은 정상 유지 기간을 3배 정도 더 늘렸다.

연구진은 이에 탄력을 받아 올해 5월 '밀음'의 각막을 추가 이식했다. 이 원숭이의 눈은 현재까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사랑이'의 각막 이식도 시도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종이식 간 각막이식 연구는 시력 이상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2015년 돼지 각막의 임상을 승인하고, 돼지의 각막을 사람에게 이식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각막 이종이식 연구의 임상 진입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건국대학교 윤익진 교수는 "이 연구의 가장 큰 의미는 돼지 '밀음'의 각막을 원숭이에게 이식해 인간과 똑같은 최소한의 면역억제제인 안약 처방만으로도 234일 동안 각막이 정상 기능을 유지한 것"이라며, "각막 이식에 적합한 혈청전환 돼지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제안했다.

농촌진흥청 최유림 축산생명환경부장은 "이종이식 연구를 활성화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 개발, 의료계와의 공동 연구, 이종이식용 돼지 전용 시설 마련 등을 착실히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국내 바이오융합기 이식 분야 연구를 지원해 축산업이 미래성장 산업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재용 기자

매일 INDEX

2면 - 귀농귀촌 정보 빅데이터 구축

6면 - 전북대 협력기수 수출 '물고기'

www.namwon.go.kr

광한루원, 구룡계곡, 뱀사골계곡,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 트리하우스, 월매를 사랑한 놀부, 남원에촌

맛과 멋이 특별한 남원의 여름

지리산 물소리에 몸과 마음이 시원~ 우리 가락에 어깨가 들썩입니다

남원시